

북한개발소식

04

2020 April

통권 174호

| 이달의 주제 |

북한의 보건의료와 코로나19, 그리고 우리의 기도



월간

북한개발소식

2020 April

CONTENTS

이달의 주제 :

북한의 보건의료와 코로나19,
그리고 우리의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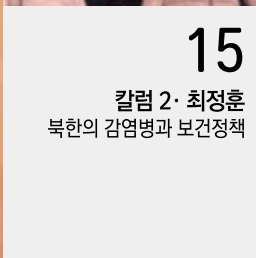
01

권두칼럼
북한의 보건의료와 코로나19,
그리고 우리의 기도



10

칼럼 1
북한의 코로나19와 대책



15

칼럼 2· 최정훈
북한의 감염병과 보건정책



21

탈북민 수기· 마리아
신앙의 자유를 찾아 (13)



27

북한 뉴스

33

서평
통일을 넘어 열방으로 -
북한 사역 헌신자
훈련 표준교제



35

북한 기도 제독



북한의 보건의료와 코로나19, 그리고 우리의 기도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전 세계가 홍역을 치르고 있다. 중국을 비롯하여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미주지역까지 확산되어가면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다. 남한에서도 수천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고령층 및 지병이 있었던 사람들 위주로 사망자도 다수 발생하였다. 의료적인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고 상대적으로 충분한 의약품과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선진국들도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를 온전히 막지 못하는 가운데 의료, 보건 상황이 열악하고 경제적으로도 중국 의존도가 높고 인적교류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에 대해서도 동일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코로나 발병 초기에서부터 가장 먼저 국경을 봉쇄하고 외국인 출입을 통제하며 코로나19 전파를 막기위해 국가적으로 공을 들였다. 그럼에도 북한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들려온다. 격리 인원수가 수천 이상이라는 보도가 이어졌고, 국제적 십자사 등 인도주의 기관들은 북한이 코로나19에 매우 취약하다며 제재와 상관없는 지원

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북한의 의료, 보건 실태를 살펴보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관심가지고 기도하며 도울 점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북한의 보건 의료 실태

북한의 보건의료는 무상치료제, 예방의학제, 의사담당구역제를 특징으로 한다. 북한은 국가가 모든 보건과 의료 시설과 장비, 의료인력을 운영하는 가운데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또한 예방에 중점을 두고 위생교육과 검열, 방역, 환경 공해 방지 등 예방보건사업을 위생방역소 주관으로 각급 병원 및 진료소 등 보건조직망을 통해 실시해왔다. ‘의사담당구역제’는 각 지역을 구역별로 나누어 의사마다 구역을 맡아 주민들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담당 구역의 진료소, 종합진료소, 도·시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은 구역 내 환자의 건강을 책임지

며, 의사들은 환자 치료와 함께 담당 구역 내 위생선전, 소독, 예방접종, 검진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¹

그렇지만 이러한 북한의 의료 시스템은 고난의 행군을 기점으로 붕괴되었다. 국가는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못하고 의료 인력들도 국가의 배급만으로는 살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 보건, 위생 환경의 악화 역시 필연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장마당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게 된 주민들은 약제를 시장을 통해 구매, 사용하는 식으로 의료서비스 공백을 메꿔왔다.

최근의 북한의 보건의료서비스는 이전 고난의 행군 시기에 비하면 상당히 정상화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절대적인 기준에서는 여전히 열악하다.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질적연구에 따르면² 병원진료는 무상으로 진행되나 진료에 수반되는 의약품은 시장에서 개별적으로 구매해야 하며, 제대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료진에게 뒷돈을 챙겨주기도 하는 등 무상의료제는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예방접종률은 높아졌지만 백신을 냉장보관, 이송하는 시스템 대부분이 노후화 및 전력 부족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의료 인프라가 열악해 접종의 효과는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병원 등 의료 서비스 이용 외에도 관

련된 상하수도 및 화장실 등 위생 관련 인프라가 매우 열악하며 이로 인해 설사와 호흡기 감염성 질환 등 수인성 질병에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39%이 안전한 식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골지역에서는 그 수치가 56%까지 상승한다고 한다. 특히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버려지는 쓰레기와 폐기물은 주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골에서는 10명 중 9명, 도시에서는 10명 중 3명이 잠재적으로 매우 심각한 건강의 위협을 줄 수 있는 환경 속에 살고 있다고 보고했다.³

이러한 보건위생상황 속에서 지역별, 신분별, 빈부격차에 따른 의료 서비스 이용에도 차별이 나타나고 있다. 탈북민들은 고위층과 간부들이 받는 의료서비스는 일반 주민들과는 큰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별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⁴

북한의 감염성 질병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감염성 질환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높아졌지만 북한은 기존에도 일반적인 감염성 질환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었다. 2004년도 WHO 통계에 따르면 북한 주민의 사망원인을 조사한 결과 호흡기 감염 및 호흡기 질환, 기생충 등 감염

1 신희영 외, “김정은 시대 북한 보건의료체계 동향 - 전달체계와 조직체계를 중심으로”, 통일과 평화 (2016) 8(2), pp. 183-184.

2 모춘흥, 정병화, “북한과의 공생, 그 (불)가능성: 식량문제와 보건의료 실태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다문화 (2019) 9(1), pp. 133-162.

3 “2019 DPR Korea needs and priorities”. Produced by UN Humanitarian Country Team and Partners. <https://dprkorea.un.org/sites/default/files/2019-07/DPRK_NP_2019_Final.pdf> p. 27.

4 모춘흥, 정병화. p.154.

성 질환이 전체 사망의 32%를 차지하고 있었다. 즉 3명중 1명은 전염병으로 사망한 셈이다.⁵ 주요 감염성 질환으로는 결핵, 말라리아, HIV/AIDS (80년대 중반 아프리카 국가와의 교류 증가 이후로), B형 간염, 신종 인플루엔자, 그 외 호흡기 및 장 관련 감염질환이 꼽힌다. 최근에도 북한 내 감염병 현실은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북한 인구 전체의 32%가 감염병을 앓고 있으며 주민들의 건강 문제뿐 아니라 남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남북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WHO에서도 ‘국가 협력전략’(Country Cooperation Strategy 2014-2019) 보고서에서 북한 내 감염병 문제의 심각성을 경고했다.⁶

북한은 시스템적으로는 감염병 환자들에 대한 진료 및 요양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고난의 행군 이후로 기존의 무상 진료 시스템이 붕괴하면서 현재까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내의 전염병 전파의 정도 및 취약성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연구 결과들은 있다. 먼저 WHO에서 조사한 세계 결핵 현황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결핵 발병 비율이 남한의 경우 10만명당 66명, 중국의 경우도 인구 10만명당 100명 이하인 데 반하여 북한은 513

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6번째로 높은 수치이다.⁷ 참고로 인구 10만명당 150명을 넘으면 결핵 고위험국가로 취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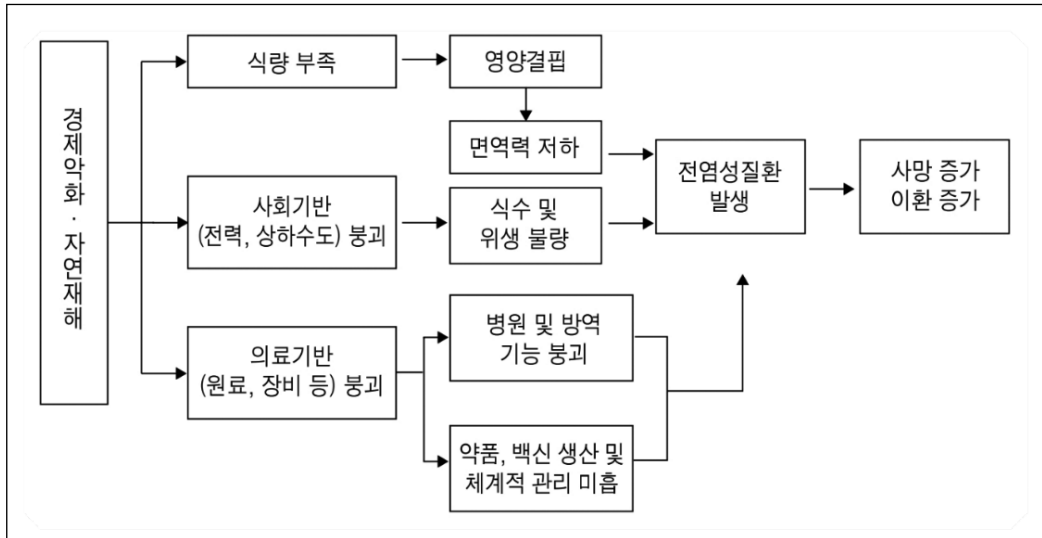
중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들의 전염병 감염 실태에 대한 연구도 있다. 중국의 의료 연구진은 2015년에서 2017년 사이 중국을 방문 또는 노동자로 입국한 북한사람 1만 8천여명에 대해 전염성 질병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의 약 3%에 해당하는 557건의 전염성 질환자를 확인하였다. 이중 B형 간염 증상자의 가장 수치가 높았고 (466명), 결핵 증상자의 가장 수치가 높았고 (33명), 매독 (57명) 등이었다.⁸ 특히 결핵은 연구 초기인 15년도에 비해 17년도의 비율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중국 평균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치였다. 연구 결과에서 보이는 절대적인 수치도 작지 않지만 북한에서 중국을 합법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사람들의 성분과 위치를 생각해 볼 때 일반 대중들 사이에는 감염증이 더욱 넓게 퍼져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위 연구에서도 북한인 방문자 중에서도 노동자들에게서만 결핵 증상자가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부유층인 사업가나 학생들 가운데서는 발견되지 않는 등 조사 대상자 내에서도 지위나 경제력에 따른 감염증의 편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모집단 크기의 차이(1847명 대 16,074명)는 감안해야 할 것이다).

5 황나미, “통일대비 북한 전염병 관리를 위한 접근전략”, 보건복지포럼 (2011.10), p. 83. (WHO 2004 Report 재인용)

6 VOA, “북한인구 32% 감염병...결핵 가장 심각”. (2020.02.19). <<https://www.voakorea.com/korea/contagious-disease>>(검색일: 2020.03.10)

7 김진선 외, “2018 국제 결핵 현황 고찰”, 주간 건강과 질병 (2019) 12(52).

8 Han et al. “Epidemiology survey of infectious diseases in North Korean travelers, 2015-2017”, BMC Infectious Diseases (2019) 19(13).



〈북한 전염병 발생의 악순환 구조 (황나미, “통일대비 북한 전염병 관리를 위한 접근전략”, 보건복지포럼 (2011.10), p. 93)〉

평시에도 감염병이 큰 문제이다 보니 북한도 나름의 대응을 해왔다. 외부의 도움 등을 활용하여 결핵, 말라리아, B형간염 등의 전염병을 관리해왔으며, 급성 전염병이 유행할 때마다 수시로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하여 왔다. 그러나 근본적인 의료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물 끓여 마시기 등 수칙을 강조하며 주민들을 주의시키거나 발병 지역 폐쇄 등 조치에 머물고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부족한 인프라로 인해 북한은 전염병 방역과 대응에서 외부의 도움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18년도에 있었던 남북 보건의료분과회담에서도 말라리아와 결핵 등 전염병 진단과 예방 치료 등 전염병 공동대응이 주요 협력과제로 제시되었다.⁹ 북한 입장에서는 여전히 전염병 문제가 보건의료 영역에서 가장 중요

한 이슈였던 것이다.

북한의 코로나19 대응과 한계

아직까지 코로나19는 명확한 치료약이 없는 질병이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가장 필수적인 조치는 바로 예방이다. 발병자에 대한 진단과 격리를 통해 전파를 최소화하고 개인 면역력 및 위생을 강화하며, 환자에게는 병을 이길 수 있는 의료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코로나19에 대한 일반적인 대응이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이 시행하고 있는 조치는 적극적인 예방이라는 차원에서는 일리가 있다. 그러나 열악한 인프라 등을 미루어 볼 때 북한이 제대로 코로나19를 막고 있는지, 코로나19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격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다.

9 남북보건의료 분과회담 공동보도문 (2018.11.07)



〈북한 조선중앙TV가 12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관련 보도를 하고 있다.〉

북한은 코로나 19 발생 초기에서부터 이례적으로 국경 폐쇄라는 강경한 조치를 취하며 전염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외국인 입국자 격리 조치를 초기 15일에서 30일까지 연장해서 실시하였으며, 방역을 위해 매일 3만명을 동원하고 있다고 한다. 그 외에도 방송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개인 위생에 대해 계속해서 강조하고 코로나19의 확산 관련 소식을 상당히 빠르게 보도하는 등 나름의 기민한 대처를 해왔다. 김정은 위원장도 계속해서 코로나19 유입 모든 통로를 완전봉쇄하라는 지침을 내리면서 국가적으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이다.

그렇지만 북한이 코로나 19를 과연 제대로 막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대체로 회의적이다. 북한의 높은 대중국 의존도와 열악한 보건의료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이 100% 코로나를 막아내기는 쉽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먼저 중국과의 교류를 어디까지 막을 수

있을지가 물음표이다. 공식적인 무역 루트는 막아놓았고 밀무역도 단속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주민 경제 생활 유지를 위해서는 중국과의 무역이 불가피하다. 그러다 보니 단속을 피해 이루어지는 밀무역 등 중국과의 교류와 이에 따른 봉쇄망을 벗어난 감염 우려가 존

재한다.

격리 조치 자체도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KDI 북한경제연구협의회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북한에 코로나 진단키트가 충분치 않다보니 제대로 된 치료보다는 자가 격리 또는 지역 격리 등의 과잉 대응을 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지금까지 감염자가 0명이라는 통계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게다가 격리자들이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식량 등을 국가에서 제대로 제공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살기 위해서 도주하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코로나19 전파를 완전히 막기도 어렵다고 우려했다.¹⁰

발병자가 발생했을 때의 대처도 문제이다. 북한 내 일부 계층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격리 시설에서 의료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즉 실제 발병했을 때

10 KDI북방경제실, “코로나19, 북한의 보건 인프라, 그리고 새로운 남북 보건 협력 가능성”, KDI 북한경제리뷰 (2020.02), pp. 3-17.

제대로 된 대처가 이루어지기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게다가 열악한 북한의 위생 상황과 주민들의 면역 및 영양상태, 장마당에 생계를 의지하는 상황으로 인한 대인 접촉 증가, 코로나19의 전파력 등을 고려했을 때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국가적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우려된다.

국제 단체들은 북한이 코로나19에 매우 취약하다고 보고 북한에 대한 의료 지원을 위해 유엔 제재 면제 조치를 신청하고 있다. 국제적 십자사는 2월 26일 유엔으로부터 제재 면제 허가를 받았다. 적외선 체온계 1천개와 유전자 증폭 검사장비(RT-PCR) 1대, 그리고 검사 장비에 소요되는 시약 1만 세트 등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진단 물품 3종류와 개인보호 용품은 5종류를 전달할 계획이다. WHO도 2월 28일 유엔으로부터 제재 면제 허가를 받았는데, 주로 진단용 유전자 증폭 검사 장비(RT-PCR)와 폐질환 환자 치료에 주로 사용되는 ‘산소자동발생기’,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 검사, 진단, 치료 장비이다. 그 외 국경없는의사회 등 구호 단체도 면제 허가를 받았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북한의 위기와 우리의 기도

앞서 살펴본 여러 분석을 바탕으로 볼 때 코로나19 팬데믹 정국은 북한에게 큰 위기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그리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부유층 보다는 빈곤층, 중앙보다는 지방, 엘리트 계층보다는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높다.

먼저 가장 우려되는 점은 북한 내에 코로나19가 확산된다면 이를 효과적으로 방역, 격리, 치료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열악한 북한의 보건의로 환경에 비추어 볼 때 코로나19 확산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생각된다. 코로나19가 주민들 사이에 확산되는 상황을 맞닥뜨린다면 북한으로서는 정식으로 어려움을 알리고 외부의 지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를 막아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북한의 기대만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여부도 문제이다.

경제적인 이슈도 중요하다. 지금은 일시적으로 국경을 차단하고 있지만 경제부분에서 중국에 크게 의존하는 북한의 상황을 미루어 볼 때 장기적으로 시행하기는 경제적 부담이 크다. 특히 장마당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에게 전염의 공포와 중국과의 교역 제한은 직접적인 생계의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음을 방송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¹¹ 이렇게 어려움이 겹겹이 쌓이게 되면 북한으로서는 예상치 못한 국가적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존 에버라드 전 평양 주재 영국 대사는 북한 내에 코로나19가 퍼지면 체제에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¹²

11 KBS, “북한, 코로나발 경제손실 첫 언급…‘막대한 손실 견디며 방역 중’”, (2020.03.10)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98142>>(검색일: 2020.03.10)

12 존 에버라드, “[에버라드 칼럼] 북한에 코로나19 퍼지면 체제 위기 맞을 수도”, 중앙일보, (2020.02.28)

이러한 부정적 예측 가운데 남한의 그리스도인의 기도제목은 무엇일까? 먼저 북한이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특히 서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기도해야겠다. 체제를 세우고 운영하는 엘리트들과는 별개로 일반 서민들은 병이 퍼지는 순간 제대로 된 조치를 받지 못한 가운데 사회적 관계의 파탄은 물론이고 자칫하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극심한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코로나19로 인한 극단적인 상황에 치닫지 않도록, 가능한 인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기도가 절실하다. 또한 이번 사태가 북한이 기존의 핵무기 개발과 주민 통제의 정치가 아닌 근본적으로 “새로운 길”을 향해 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실질적인 행동도 필요하다. 북한이 정식으로 상황을 알리고 유엔이 의료 부분에서 제재 면제를 승인한다면 북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오랜만에 열리게 될 것이다. 전부터 보건 의료협력을 추진해온 우리정부도 관련 조치를 착수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NGO들도 지원 활동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비록 남한도 코로나19로 인해 큰 곤욕을 겪은 상황이고 교회들도 활동에 어려움이 있으나 우리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는 북한의 형제자매들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기독NGO들과 합심하여 남쪽의 그리스도인들이 북한과 그 사람들을 잊지 않았음을 알리는 것은 그 자체가 의미 있는 선교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은 온정의 손길을 전달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북한 내 서민들과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고 기도해야 한다.

무엇보다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첨단 기술로 무장한 현 시점에 사는 우리도 정작 앞으로 닥쳐올 일에 대해서는 한치 앞도 내다보기 어렵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연초에 극심한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하나님께는 우연이 아님을 알기에,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분께서 이러한 요소들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리라 믿는 믿음이 요구된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하나님께서 남한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북한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셔서 닫혀있는 문을 여는 도구로 사용하시길 기도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한반도에 편만하여질 것을 기대하며 믿음과 기도로 준비하는, 미리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를 가진 우리가 되길 소망한다.

바로잡습니다.

지난 북한개발소식 20년 3월호 10페이지 첫 문단 6-10째 줄 문장이 편집과정에 오류가 있어 바로잡습니다. 원 문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는 재래시장, 마트, 백화점, 인터넷 쇼핑몰, 홈쇼핑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시장을 수시로 접하며 구매자로, 때로는 생산자, 혹은 중개자로 자리 잡았으며, 시장에서는 많은 참여자들이 사회적 관계, 인적-물적 네트워크 등을 맺게 된다.”

북한의 코로나19와 대책

○○○ (대북 사역자, 내과 전문의)

북한의 의료변천과 실상

북한의 의료의 특징은 무상치료제, 예방의 학제도, 의사담당구역제라는 매우 훌륭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1970년대까지는 북한의 의료가 중국을 능가하는 수준이었고 중국인들이 북한에 와서 치료 및 수술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이후 북한의 의료체계는 붕괴되었고 현재도 북한의 의료제도는 가동이 잘 되고 있지 않다. 무상의료를 표방하면서 당국에서는 핵, 미사일개발과 해킹에 모든 국가역량을 집중하기 때문에 의료를 포함한 과학은 뒷전이어서 일반인들에게 주어지는 의료는 1970년대보다 더 못한 상황이라는 것이 탈북민들의 증언이다. 그나마 의료상황이 좋다고 하는 평양시와 나선시조차 필요한 약품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일회용주사기나 수액병을 재활용해야 하는 실정이다.

북한의 코로나19현황

북한당국은 코로나19가 발병하지 않았다고 발표를 하고 있다. 북한은 몽골과 비슷하게 코

로나 발생초기에 중국에 대한 철저한 국가 봉쇄를 시행하였다. 중국과의 국경을 봉쇄하면서 체포해서 북송해야 할 탈북자까지 북송을 거부할 정도로 중국에서 넘어오는 인력을 봉쇄하였고 무역으로 들어오는 물품도 2주간 격리를 하였으며 북중 밀무역을 하는 사람이 발견되면 사살하라는 김정은의 명령이 시행되고 있다. 코로나19가 유입이 되었다 하더라도 철저한 격리와 봉쇄로 유행은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유행이 되었다고 하면 북한 주재 외국대사관직원등에 의해 소식이 전해졌을 것이다. 4월10일 실내에서 진행되는 최고인민회의강행과 4월 15일 태양절 준비소식을 보아도 북한에서는 코로나19가 유행하지 않고 있다는 예측을 할 수 있다.

물론 북한에 진단키트가 없었는데 2월26일에 북한의 요청에 의해 러시아에서 1500개 진단키트를 제공하였다. 이 진단키트는 평양의 고위급인사 중심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북한에는 코로나19가 아니어도 약품을 구하기 쉽지 않고 의료체계가 효율적으로 가동되지 않아서 일반폐렴과 일반질환에 의해 사

망률이 높은 나라이다. 북한에서 직접 전해오는 소식으로는 코로나19를 의심할 수 있는 소식들은 많이 전해지고 있지만 코로나19가 아닐 가능성이 많다.

북한 청진시의 한 병원에서 폐렴으로 사망한 환자들을 병원에서 서둘러 화장하고 병원전체를 소독하는 등 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망자의 시신을 가족에게 돌려주는 관례를 깨고 병원에서 자체 화장하여 유골만 전달하고 있는데 코로나19가 전염성이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코로나19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경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월 중순에도 “함경북도에서 제일 큰 병원인 도인민병원에서도 독감과 폐렴을 치료하지 못해 12명이 사망했으며 병원측은 시

신을 화장까지 해서 유골상태로 가족들에게 전해 주었다”고 소식통이 전해주었다.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주민소식통은 같은 날 “도인민병원에서 독감환자 10여명이 무더기로 사망하면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면서 “병원에서는 독감과 폐렴에 의한 사망이라고만 밝히고 있지만 환자의 시신을 돌려주지 않고 화장처리하면서 북한보건당국에서도 코로나19에 의한 폐렴을 의심하고 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신의주에서는 코로나관련 보위지도원과 보안국간부가 김정은의 방역규정을 어겼다고 총살형을 당했다고 한다. 감염이 의심됐기 때문이 아니라 김정은의 지시를 우습게 봤다는 죄로 본보기로 총살형으로 다스렸다고 한다.

강성무역회사 보위지도원이 코로나19 감염



〈백두산밀영 고향집 행군길에 오른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일꾼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마스크를 끼고 코로나19 대응 회의를 하고 있는 평안북도인민병원 의료진의 모습.〉

자로 의심된다는 보고를 받은 김정은은 평양에서 유능한 의사 100명을 신의주로 파견하고 신의주와 인근 동림군을 봉쇄할 것으로 지시했다고 한다. 북한당국에서 7천명 정도가 의료감시대상이라고 발표를 했지만 확진자는 없다고 전했다.

최근에 김정은이 참관한 포사격장면에서 같이 있었던 간부들이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으로 최고 지도부가 코로나19를 철저히 경계함을 엿볼 수 있다. 김정은은 원산에 피신해 있고, 평양주재 WHO직원이 코로나 관련 주민접촉을 봉쇄하고 있으며, 평양주재 해외공관이 폐쇄되는 것을 보면 평양에도 코로나19에 대한 철저한 예방과 격리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 코로나 퇴치협력을 위해 제3세계의 움직임

북한은 중국이나 이란과 같이 언론을 통제하고 인권을 무시하는 지역이며 전염병이 확

산되어도 비밀에 붙이고 방역이나 치료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이다. 하지만 몽골과 같이 철저한 초기 북중국경봉쇄와 의심환자격리로 코로나19 청정지역일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북한은 가뜰이나 경제제재로 어려운 상황에 중국과의 접경을 철저히 봉쇄하면서 식량 등 생필품이 조달이 되지 않아 쌀값과 옥수수가격이 20~35% 가량 치솟고, 휘발유는 45%, 디젤유는 67%가 치솟았으며 장마당활동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고 한다. 내부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고난의 행군 때보다 더 많은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1995년 고난의 행군당시 자존심이 강한 북한이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구호를 요청했듯이 북한 당국이 감당이 못할 상황이 되면 국제사회에 긴급 구호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한국이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지난 달 현재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적십자위원회(IFRC), 세계식량기구(WFP), 세계보건기구(WHO), 국경없는의사회, 유진벨 등이 대북지원면제 승인을 받았다.

북한에 필요한 것은 진단기구와 함께 마스크, 보호복, 장갑, 보안경, 얼굴보호장비 등이 필요하여 국제적십자사에 요청했다고 한다. 러시아에서도 진단장비를 1500개를 기증하였다. 한국과 국제사회에서 북한의의료지원요청에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와 함께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갖추어 졌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전기와 물조차 안정적인 공급을 받을 수 없고 주민들의 영양상태가 매우 불량하고 의료환경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이다.

또한 물자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인적교류와 보건의료 교육이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 현지에서 확인하여 북한 지도부가 아닌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이 되어야 한다.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 북한의료를 돕는 일은 필수적이다.

결국은 한반도는 통일이 될 것이다. 통일을 잘 준비해야 통일과정이 순조로워질 것이다. 정부와 민간에서 모든 영역에서 통일을 준비하고 있지만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특별히 보건의료는 남북관계가 안 좋을 때도 도움을 요청하는 영역이다. 건강과 질병치료는 누구에게나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건의료는 체제와 이념에 관계없이 모두를 위해 협력되어야 할 분야이다. 보건의료단체뿐만 아니라 일반NGO, 지자체와 정부에서 남북보건 의료협력을 활발하게 진행하여 다른 분야의 협력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북한은 우리의 이웃이고 지극히 작은자이다.

북한은 곧 하나 될 우리민족이고 우리의 이웃이며 지극히 작은 자이다. 열악한 의료환경 가운데 북한의료인들도 최선을 다해 공공보건과 환자치료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현대의학장비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최신 의학이론은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북한의 의사들을 보면 놀라울 정도이다. X-ray필름이 없어서 영상의학과 의사가 직접 X-ray를 찍면서 환자상태를 파악한다. 피부이식이 필요하

면 의료인이 자신의 피부를 제공하기도 한다. 북한의 보건의료인들에게 최신장비를 공급하고 재교육을 시키면 한국의 세계적인 의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접목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된다.

북한병원에 의료장비를 지원하고 교육하며 상호교류가 필요하다. 대형병원간에 MOU를 맺고 상호협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아야 한다. 남북의 각 의학회별로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는 것도 상호의료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북한의 간호를 세우기 위해 국제기준의 간호교육을 접목시켜야 한다. 북한에는 6개월에서 2년의 간호교육과정이 있다. 그것도 주체사상교육이 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실제로 간호교육이 1년 이하라고 보면 된다. 남북간호 통합을 목표로 북한의 간호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려놓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북한 간호인력을 교육시키는 것이다. 통일을 준비하는 간호계는 한국에 있는 간호인력을 북한간호교육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할 것이다. 최소한 석사과정을 많은 간호사가 이수하게 하여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간호인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교육시키는 일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등 보건의료인력도 같은 준비가 필요하다.

용서와 화해가 중심인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탈북자들을 만나보면 북한정권에서 압제와 피해를 보았고 목숨을 걸고 탈북하면서 가족



〈2018년 11월 남북보건의료분과회담에서 악수하는 양측 대표들(통일부)〉

이나 동료가 죽어가는 것을 눈으로 목격을 했고, 중국에서 팔려가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인권침해와 피해를 당했다. 그리고 세뇌되어 믿어 왔던 북한 정권이 지도부만 배를 불리는 독재정권이라는 것을 깨닫고, 북에서 탈북하면서 받은 고난과 상처, 그리고 분노로 많이 힘들어 하고 있다. 한국의 정신과의사들이나 상담사가 감당할 수 없고 공감하기에 너무나 깊은 상처, 아픔, 분노 그리고 가족과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다. 이것을 잘 아는 탈북한 기독의료인들은 자신이 정신과의사가 되고, 상담사가 되어서 탈북민의 정신적 고통을 들어 주고 품고 치료하는 역할을 해야겠다고 나서기도 한다. 통일운동은 용서와 화해, 상처치유운동이 되어야 한다. 탈북민은 남과 북의 문화와 체제를 다 겪어

보았기에 통일과 통합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탈북민들을 각 분야에 전문가로 훈련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사회와 교회에서 적극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 특별히 정신적인 상처, 분노, 죄책감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기독교 탈북민 전문가들이 많이 세워져야 한다. 탈북의료인들을 정신과와 상담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선권을 주고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탈북민과 북한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건강한 통일, 치유와 회복이 있는 통일을 이루어 가는데 필수적이다. 그런 면에서 교회가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북한지도부는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는 동력으로 미국과 한국에 대한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주민들에게 심겨진 증오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고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것이다. 교회와 기독교인 전문인들이 정부와 지자체 각 분야에 들어가서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있는 통일을 열어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통합과 통일의 과정에 많은 문제들이 터져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실제적인 보건의료 교류를 추진해야 한다.

평양선언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공동대응은 이미 합의되었다. 이에 근거한 상호간의 정보 교환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에 의료적인 지원을 하는데 제3기관을 활용하여 지속성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정책도 병행해 가야 한다. 현실적으로 잘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은 진단기술 및 정보의 공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치료약, 백신과 관련된 상호 교류를 학술적으로 소통을 한다면 상호 윈윈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퇴치위한 북한정권의 요청에 대비해야 한다.

코로나19가 혹시라도 북한에서 발병을 한다면 정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태로 전개될 수가 있다. 이란이나 이탈리아와 같은 엄청난

재앙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 40%가 영양실조이고 의료체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나라이다. 마스크도 없어서 외부로 내보내는 사진에 마스크를 사진조작으로 내보낼 정도이다. 코로나19 혹은 대량아사자 발생으로 인해 북한정권이 국제사회와 한국에 공식적으로 구호를 요청할 가능성에 대비를 해야 한다. 한편으로 북중국경봉쇄와 북한 장마당 경제의 붕괴로 인한 대량 아사자 발생으로 인한 정권붕괴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

우선 한국의 코로나사태를 잘 극복한 후에 북한에서 공식적인 구호요청이 올때 혹은 대량으로 북한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 그 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기독교인과 교회에서 각 분야에서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치유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참고자료〉

- 코로나19, 북한보건인프라 및 남북 보건 협력 가능성, (2020) 북한경제연구협의회
- 북한의 감염병 대응실태와 남북협력, (2020. 02) 향남
- https://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unscsanction-02062020152729.html (2020.02)대북지원단체, 유엔제재면제
-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305/100013029/1> (2020.03) 총살 북한식 코로나 방역법
- <https://www.voakorea.com/coronavirus/doctors-without-borders> (2020.02)국경없는 의사회
- <https://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35332&thread=22r03> (2018.10)

남북보건의료협정

- <https://www.bbc.com/korean/news-51640735>
(2020.02)북한의 코로나 대처능력?
- https://www.rfa.org/korean/in_focus/coronavirusnk-02202020093351.html
(2020.02)북 청진병원에서 폐렴으로 10여명 사망, 코로나?
- https://newsis.com/view/?id=NX20200227_0000933891 (2020.02) 러시아 북한에 코로나진단키트 기증
-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embassyclosure-02282020153453.html (2020.02)평양 주재 외국 공관 폐쇄
- <http://www.asiapress.org/korean/nk-korea-prices/> (2020.03)북한 시장 최신 물가정보
- <https://news.join.com/article/23032807>
(2018.10) 북한인구 40% 영양실조
- http://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9069&Newsnumb=2020039069 (2020.03) 태양절(4월15일) 준비
-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21/2020032100611.html?utm_source=daum&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2020.03) 최고인민회의(4월10일)개최

북한의 감염병과 보건정책

최정훈 (고려대 공공정책연구소 연구교수)

1. 사회주의의학은 예방의학

김일성이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북한 보건의료의 양대산맥 중 하나는 예방의학이다.

1966년 10월 20일 김일성의 “사회주의의학은 예방의학이다.” 발표로 세상에 알려진 북한의 예방의학은 주민들이 병에 걸리기 전에 미리 대책을 취하여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말로 이러한 순수한 목적으로 북한의 보건정책이 진행되었다면 북한의 보건의료가 오늘날처럼 열악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1962년 10월의 카리브해 위기와 중소간 이념분쟁 등 당시 조성된 국제적환경은 북한에 불리해지고 있었다. 체제위기를 느낀 김일성은 1962년 12월 노동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4대군사노선”을 채택하였다.

이후 1966년 10월 당 대표자회의를 열고 경제국방병진노선을 제시한다. 여기서 김일성은 경제발전을 지연시키더라도 군사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민수경제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국방편중정책을 펼치게

된다.

김일성의 경제국방병진노선은 북한사회 전반에서 “한손에는 총을, 한손에는 마치를!”의 슬로건 하에 전 군중적으로 벌어지게 된다.

노동과 국방, 두 분야에서 동시에 혁신적 성장을 요구하는 이 운동은 건강한 노동력의 확보를 관건으로 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고안되고 만들어진 것이 북한의 예방의학이었다. 생산과 건설의 고조를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했었고 이에 대한 책임을 보건 의료인들에게 전가하였다. 즉 국가적인 투자와 관심을 줄이면서도 북한 주민들과 보건의료인들 자신의 대중적 운동으로 만들어 일석삼조의 효과를 보겠다는 노림수였던 것이다. 이는 당시 주체사상과 결부되어 이념화되고 “당의 예방의학적방침관철투쟁”으로 전개되어 북한 전역에서 “유해물잡이운동”, “모범위생군창조운동”, “병없는 리창조운동”의 형식으로 사상투쟁, 충성경쟁까지 벌어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의료사고나 전염병발생은 충성이 부족한 것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식으로 간주되는 풍조가 일다보니 이런 발생사례들이



〈북한의 보건의로 홍보전단〉

점차 은폐경과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었다. 북한에서 감염병에 관한 실태와 자료들이 은폐조작 되기 시작한 것은 이때부터였으며 이는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북한의 예방의학은 북한이 자랑하는 것과는 달리 북한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불리한 환경으로 변질되게 되었던 것이다.

1980년에 북한이 “일제식민지가 남긴 전염병 완전 근절”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음에도 이후 1980년대 말 홍역사태, 1990년대의 각종 전염병 창궐로 수많은 사망자를 낳는 비극이 산생되게 된 것은 결국 북한식 사회주의 예방의학이 초래한 인재였던 것이다.

2. 확진도 못하고 벌어지는 방역투쟁

1994년 7월 사망한 김일성의 유산인 김정 일시대에는 수십~수백만의 아사자와 병사자를

발생시킨 대재앙으로 그 시작을 땀다.

구소련과 동구권사회주의의 붕괴로 사회주의시장을 잃은 데다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자체모순, 연이은 자연재해는 식량부족과 전염병 창궐을 불러왔다.

이미 김일성시대에 시작되고 일관하게 진행되어 온 국방분야에 대한 편중된 정책들은 민간분야의 낙후와 민간경제의 붕괴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는 그대로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어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되게 되었고 설사 살아남았다고 해도 주민 절대다수가 기아선상에서 해매이며 영양실조에 빠지는 비극적인 상황을 낳았다. 열악한 보건위생환경과 영양실조로 인해 주민들은 장티푸스, 파타티푸스, 콜레라와 같은 후진국성 감염병들에 노출되어 쓰러지고 고통을 겪었다. 또한 홍역과 말라리아, 수두, 간염, 결핵 등과 아메바와 회충 증 같은 기생충성질환으로 건강과 생명이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되었다.

문제는 이미 열악해진 보건의료가 전기와 수도마저 제대로 공급이 안 되어 거의 붕괴되고 작동불가 해졌다는 것이다. 이것은 창궐하여 확산 중인 온갖 감염병들이 과학적인 진단을 못한 채 임상증상 참고위주의 경험적인 대응밖에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정확한 실험실적진단이 불가능한 가운데 임상증상을 참고로 경험적인 치료에 의존하다보니 정확한 항생제의 적정 치료량 사용이 안 되어 수많은 약제내성환자들을 산생시키게 되었으며 이는 특히 기존의 결핵치료제에 반응하지 않는 다제내성환자들을 발생시키는 심각한 문



〈다제내성결핵은 2가지 이상의 항결핵 약제에 내성을 보이는 결핵을 말하지만 최근에는 결핵약의 표준 치료제인 '아이소니아지드'와 '리팜핀'에 내성을 보이는 결핵을 주로 뜻한다. 다제내성결핵은 완치율이 50%대로 낮는데, 이는 약이 잘 안 듣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치료 기간이 12~18개월로 길고, 처음 3개월 동안은 매일 주사를 맞아야 하는 등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제를 낳기도 했다.

또한 감염병문제를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로 직결시켜 초기부터 과잉대응을 벌이는 북한에서 감염병 확진 부재문제는 사회적 혼란과 주민들의 고통을 가일층 심화시키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3년 사스투쟁과 2006~2007년 홍역투쟁, 2009년 신종플루투쟁이다. 2003년 사스유행 당시 북한당국은 초기부터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를 운운하며 8개월에 걸치는 국경차단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염병투쟁에 돌입하였었다. 모든 철도노선을 차단하고 역학확인서가 없는 인원엔 대한 통제와 평양으로 향하는 모든 인원엔 대한 역학감시와 검열을 진행하였다. 결과적으로 북한당국은 “사스환자 0명”을 선포하고 방역투쟁 종결을 선포했지만 이는 사실 사스 확진 능력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벌인 놀음이었다. 당시 열과 그 외의 증상들을 보이다

가 사망한 사례들이 상당했지만 이를 사스라고 확진할 수 있는 진단체계가 부재했고 함부로 사스라 진단을 내렸다가는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도 알 수 없는 관계로 “사스환자 0명”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2006년 홍역투쟁은 처음에는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의 슬로건과 함께 성홍열투쟁으로 선포되어 진행되었다. 이때 역시 유증상 사망자가 속출되었지만 차단과 격리를 위한 감시와 통제밖에 다른 방법은 없었다. 양강도가 발원지로 확인되면서 양강도는 역학지로 지정되어 차단되었으며 평양으로 향하는 모든 철도노선이 통제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국가비상방역대책위원회가 발족되고 야단법석을 떨었지만 정확한 실험실적 진단은 없었다. 성홍열투쟁이 한참 벌어지던 12월 평양으로 향하는 무산-평양행 열차에 침승하여 역학검열을 진행하던 필자는 함흥역에서 중앙위생방역소 실

장을 만나 동행하게 되었다. 그와 실무적인 대화를 진행하던 나는 깜짝 놀랄만한 사실은 알게 되었다. 당시 중앙위생방역소 역시 성홍열 균분리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확진도 못한 채 김정일의 방침, 보건성 지시문, 국가비상방역지휘부 지시문 등이 하루에도 여러 차례 하달되고 국가적인 야단법석을 떨었던 것이다. 후에 확인된 바에 의하면 당시 사태의 장본인은 성홍열이 아니라 홍역바이러스였었다. 임상증상이 엇비슷하여 감별이 어려운데다 실험실적인 확진이 불가능한 관계로 벌어진 혼란이었다. 홍역으로 확진된 것도 후에 과학적으로 진단된 것이 아니라 환자의 구강 내에서 우연히 홍역의 특징 증상인 코플릭반점(Koplik's spots)이 발견되었기 때문이었다. 이후 성홍열투쟁이 홍역투쟁으로 바뀌고 김정일의 방침도 그에 따라 달라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를 두고 방역전문가들을 비롯한 실무진들이 북한의 비과학적인 무능한 현실에 개탄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이후 2009년 신종플루사태, 1년 사계절 계절마다 유행하는 계절성 감염병들, 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이후 성행하는 성매매를 통한 성매개감염병(STI)들 역시 딱히 그 정체를 확인 못한 채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의 구호아래 국가적 야단을 떨고 있는 것이 북한 방역투쟁의 현 주소이다

3. 불가능한 역학고리 차단

감염병 창궐확산 시 북한의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전략의 전술적 대응은 역학고리 차

단에 초점이 맞춰진다. 역학이란 감염원, 감염경로, 감수성으로 이루어진 감염병 주요소들이다. 감염병 대응에서 이 세 요소 중 하나만 차단시켜도 확산을 방지하고 궁극에는 근절할 수 있다. 이번 신종코로나사태에서 1월 22일을 기점으로 북-중 국경차단 등의 대책을 북한당국이 취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보건위생환경과 보건의료시스템이 열악한 북한으로서는 감염경로를 차단하여 감염원으로부터의 감염 확산을 될수록 빨리 방지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대처방법이다. 하여 관광객유입으로 인한 외화벌이, 수출입 등 절대적의존관계인 중국과의 국경차단도 과감하게 결정하고 시행한 것이다. 처음부터 “국가존망”으로까지 표현하며 국가비상을 선포하고 과잉수준의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단 신종코로나가 북한에 유입되면 그로인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중국과의 국경차단을 시작한 이후 여러 차례 방송매체들에 보건상, 국가검열원장 등 보건당국자들을 출연시켜 북한 보건의료에 대한 선전과 적절한 대응으로 의해 환자가 없다고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체제과시성 방송선전을 하는 와중에도 WHO, IFRC, “국경없는 의사회” 등에 진단시약과 장비 등의 지원을 요구하였다. 이는 북한의 “환자 0명”의 발표가 과거와 다를 바 없이 확진도 못한 채 감행된 의도적인 감염병 관련정보의 은폐조작이었다는 방증으로도 된다.

작년 12월과 올해 1월말 북중 국경차단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북한과 중국은 인적 왕래가 감염을 의심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이루어

졌었다. 하여 북한 당국의 공식발표에만 의해서도 의학적감시대상이 평북도와 평남도, 강원도, 자강도 등 2만 명을 넘어선다. 감염병 유행시 격리원칙과 대상은 발원지와 의진자, 환자로부터의 차단이다. 다시 말해 중국은 신종코로나 발원지이니 차단한 것이고 공식발표에 의해 집계가능한 2만 여명의 격리자들은 의진자, 환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북한의 경우는 초기 확진이 불가능했으니 신종코로나 의심 사망자가 나왔기에 국내 격리가 이루어진 것이라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여기서 문제는 남한에서는 자가격리가 아무 문제가 없지만 북한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이라는 것이다. 전기와 수도가 보장되지 않고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북한주민들의 실정에

서 자가격리는 두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집에 갇힌 채 아사하거나 감염병의 위험을 무릅쓰고 밖에 나와 감염병에 걸려도 살아남을 확률에 기대를 거는 것이다. 당연히 격리된 주민들은 후자를 택한다. 즉 북한에서 격리는 말로 시작해 말로 끝나는 실행 불가능의 대책이라는 것이다. 북한으로서 역학고리를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하게 가능한 방법이 무용지물이 됨으로서 사실상 감염병대응은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 과거부터 이어져오는 북한의 현실적 한계이다. 전 세계 유일무이 국내 지역 간 이동도 자유롭지 않은 북한에서 감염병 유행시 통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한번 감염병이 확산되면 다른 나라에 비해 더 오래가는 이유가 바로 이런 원인



〈남포 수출입품 검사검역소에서 코로나 방역을 하고 있는 모습.〉

에 있는 것이다.

북한과 연락하고 있는 탈북민들의 얘기에 의하면 요즘 사망자도 속출하고 자가격리가 자각적으로 지켜지지 않아 격리된 집들에 한 해 문에 못을 박아 강제격리를 하고 있다고 한다. 2월초에 시작된 북한 내 380여명 외국인에 대한 격리조치가 3월 초에 해제되고도 지정된 장소만 방문 가능, 평양 밖은 외출금지 등의 조건을 붙여 감시하고 있는 것도 위 사정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설명은 북한 당국의 “아직 진단과 치료에 대한 확실한 방법이 없는 관계로 확실한 방법이 나올 때까지 당분간 모든 차단을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발표를 통해 향후 북한의 감염병 대응 방침을 알 수 있다.

인류사 전무후무한 독재시스템으로 주민통제가 절대적으로 가능한 북한이지만 너무나도 열악한 주민들의 삶의 환경은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감염병도 아사의 위협보다는 차등으로 밀린다는 비극적인 상황을 초래하였다.

인류사와 함께 한 감염병은 당대 그 사회의 모든 것을 집대성하여 보여준다.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감염병 유행 시에도 주민의 안전보다는 체제의 이미지와 체면에 정책의 중심이 맞춰져 국제사회와 정보공유조차 거부하고 은폐조작하는 북한체제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북한주민들은 감염병의 항시적인 위협에서 해방되지 못할 것이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13)

●
마리아

벌목 일은 정말 사람이 할 것이 못 되었다. 날마다 극심한 추위와 고된 노동을 견뎌야 했다. 산 아래에서 작업을 하는 날에는 배어낸 나무를 어깨에 매고 산등성이 위로 끌고 가야 되는데 워낙 무게가 있다 보니 거의 기어가다 시피 끌고 갔다. 산 위에서 나무를 배어내더라도 그 나무를 어깨에 매고 산 아래로 끌고 내려가는데 무게도 무게지만 자칫해서 넘어지거나 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으니 그 또한 고역이 아닐 수 없었다. 특히 1조장이 되어서는 책임감까지 더해지며 매일같이 살아남기 위해 전쟁 아닌 전쟁을 치렀다. 공구수리도 맡아서 하게 되어 노동할 때 사용하던 쇠뿔줄을 수리하는데, 도끼로 쇠뿔줄을 내리칠 때마다 도끼가 튀면서 손 뼈마디도 같이 맞기 일쑤였기에 나중에 가서는 손 뼈의 모양이 변형될 정도로 부어올랐다. 추위를 견디는 것도 지긋지긋했다. 추위가 독한 날에는 발에 동상이 심하게 걸려 진물이 나올 정도였지만 두꺼운 겨울 신발이 없는 죄수들은 얇은 여름신발로 한겨울 추위를 견뎠다. 시린 발을 부비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죄수들은 비닐박막을 발에 감싸는 것이 유일한 대책이었다.

한번은 아주 심각한 장염을 앓았다. 바지에도 피곱이 흐를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고, 걷기도 힘들었다. 열이 펄펄 나는 상태에서도 출근

하려고 일어섰는데 다리가 똑바로 서질 못하고 벌벌 떨려왔다. 그 모습을 본 죄수들이 그 반에서 나 대신 다른 사람을 투입하여 대신 일하도록 했다. 들키면 큰일나는 일이었지만 다행히 걸리지 않고 넘어갔다. 그 와중에 얼마 전에 면회를 왔던 남편이 가져온 물건 중 페니실린 같은 진통제가 있길래 다른 죄수와 장염 약으로 바꿔 먹어 간신히 살아남았다. 아플 때 바꿔 먹을 물건도 없는 죄수들은 어떻게 살아남을까 싶었다.

출소가 몇 개월 남지 않은 죄수들이 벌목반 짬 오게 되면 그동안 겪어왔던 힘겨운 노동과 비인간적인 생활로 인해 인격이든 체력이든 거의 바닥이다. 더욱이 감옥살이를 10년, 15년 가까이 오래한 죄수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긴장해 있고 화도 잘 내었다. 각종 범죄자들과 섞이어 모든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며 비인간적인 노동 강도의 벌목일을 감당하다보니 벌목반 사람들은 유난히도 더 예민하고 사나웠다. 벌목반을 종종 만기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이름처럼 오늘 출소하기도 하고 내일 출소하기도 하다보니 다른 반보다도 화합이 참 안되고 개인주의에다 약육강식 정신이 더 심하였다.

이 와중에 교화소 생활을 버티게 해주는 것은 아무래도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동료 죄수



〈북한 교화소의 열악한 환경 인포그래픽 (통일연구원 유튜브 캡처)〉

들이었다. 감자반에서는 루디아 선생님과 옥자와 친하게 지내면서 서로 챙겨주고 보듬어 주었는데, 이것이 정서적으로 참 의지가 많이 되었다. 벌목반에 와서는 1조장이었던 내 밑에서 1분조장 역할을 했던 금자와 친해졌다. 처음에는 분도 잘 내고 다른 사람 해코지도 잘하는 질나쁜 친구인줄로만 알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는 사이가 되었다. 감방 안이든 밖이든 내가 먼저 따듯하게 다가갈 때 사람들이 다가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덧붙여 벌목반 담당 교도관도 엄하기 짝이 없었지만 알게 모르게 사람 좋은 면이 있어서 그나마 벌목반 생활을 견뎠다. 이런 저런 모양으로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통해 격려하시고 도처에 도움의 손길을 예비하셨다.

살을 에는 듯한 추위는 서서히 사라져가고 어느샌가 창문 밖에 꽃이 하나둘씩 피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기 전 눈길을 사로잡는 자연의 경치는 그 날 하루의 기분을 좌우

했다. 내가 있었던 그 갑갑한 감방과 대조될 정도로 온갖 꽃들이 만발한 산 속이었다. 그 경치를 감상하는 그 찰나의 여유가 참 귀했다. 벌목반 생활을 버티게 해주는 소소한 행복이었다.

벌목반에서의 몇 개월을 지나다 보니 어느새 출소 전 일주일의 다가왔다. 출소 일주일 전에는 기존 방을 나와 출소 직전의 죄수들이 모인 방에 재배치된다. 일명 ‘종료반’은 중증의 허약자들도 함께 머물도록 되어있는데, 침대 위쪽은 만기자들이, 아래쪽은 허약자들이 사용한다. 이 방에 따로 보내진 허약자들은 건강 상태가 매우 위급한 죄수들로 거의 회복 가능성이 없고 장기간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이다. 허약자들에게는 일을 따로 시키지 않고 오전,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콩비지를 한 국자씩 줬다. 내가 만기자로서 그 방에 들어갔을 때 보배언니가 그 곳에 허약자로 들어가 있었다. 나는 출소하기 전에 짐을

정리하면서 그동안 사용하던 솜바지와 솜거 놓았던 음식물들을 보배언니에게 넘겨주었다. 그리고 출소 전에 감자반이 이동하는 경로를 알아봐두었다가 루디아 선생님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며 보배언니를 부탁했다.

출소하기 직전에 풍습처럼 으레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회충 제거이다. 만기가 며칠 남지 않은 죄수들은 남은 물건을 팔아 회충약을 구해다가 회충제거를 하고 나온다. 약을 먹고 화장실에 가면 한가득 회충만 나온다. 나도 물건들을 팔아 회충약을 구하는데 썼고, 남은 소지품들은 다 정리해서 감자반에 아끼던 옥자라는 동생에게 넘겨주었다. 그랬더니 옥자는 눈물을 머금고 나갈 때 입으라며 뽕뽕 아껴두었던 속옷을 되려 챙겨주었다. 내가 곧 나간다는 소식을 접한 죄수 몇 명이 나에게 찾아와 주소가 적힌 쪽지를 전달해주며 자기들 소식 좀 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나는 집에 사정이 있어 아무도 면회오지 않는 그 죄수들의 심정을 알기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챙겨서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흔한 이름도 아닌데 나와 성만 다르고 이름이 같은 세 사람이 종료반에 다 같이 모이게 되었다. 교화소가 해발고도가 높은 곳에 위치한 터라 원체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출소날이 다가올수록 점점 날이 따듯해지는 것 같았다. 우리 셋 중에 누구네 집에서 먼저 데리러 오는가 내기를 하는 여유까지 부리면서도 마음으로는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았다. 보통 출소 보름 전에 통지서를 띄워서 가족이 방문하도록 알리거나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담당보안서에서 데

리러 오는 것이 일반이었다.

꿈에서도 그리던 출소날이 되었다. 교도관의 지시에 따라 죄수복을 벗고 몸 검신을 했다. 들어올 때처럼 나갈 때도 뽕뽕(두 손을 머리 위로 올리거나 뒷짐을 진 상태로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여 여성의 생식기나 항문에 숨긴 돈이나 물건이 몸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행위) 30번 지시를 받았다. 쪽지를 숨기고 있었던 터라 매우 긴장되었지만 최대한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도록 온 몸에 힘을 주었고, 다행히 아무것도 걸리지 않았다. 쪽지가 걸리는 즉시 복역 기간 연장에다가 쪽지를 주었던 죄수들에게도 무지막지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걸리지 않은 것은 정말 천만다행이었다. 몸 검신이 끝나고 예전에 집에서 남편이 면회 왔을 때 가져온 옷을 입었다. 감옥 안에서 입던 옷이나 쓰던 물건은 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해서 옥자가 준 속옷을 가지고 나갈 수 없었던 것은 참 아쉬운 일이었지만, 더 이상 삼색 죄수복을 입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좋으면서 실감이 나지 않았다. 마지막 절차로 서약서를 작성했다. 교화소에서 있었던 어떠한 일도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다고 서명하는 것이었다.

몸 검신이 끝나고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교도관이 내 이름을 불렀다. “마리아! 나와!” 순간 내 귀를 의심했다. 교도관이 내 죄수번호가 아닌 내 신성한 이름 석자를 부를 때 내가 느낀 그 감정은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내가 출소한 ○○월 ○○일, 정말 세상에 다시 태어난 날처럼 여겨졌다.

보통은 죄수들이 복도에 나가는 것이 금지

되어 있었지만 내가 출소를 할 때 저 멀리서 만기반 죄수들이 몽땅 복도에 나와서 울면서 잘가라는 인사를 해주었다. 어떻게 그 문이 열렸는지는 모르겠으나 모두들 나를 그렇게 배웅해준 것이 너무 좋고 고마웠다. 보통 출소는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다들 궁금해하기도 하고 친했던 죄수들은 인사도 할 겸 그렇게 배웅을 해주었던 것 같다. 나중에 듣고 보니 옥자를 포함하여 나와 친했던 죄수들이 그렇게 울었다고 한다. 나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도 ‘뒤돌아보면 다시 들어간다’는 속설이 떠올라 절대 뒤돌아볼 수 없었다. 그래서 시선은 정면을 보고 걸으면서 뒤를 향해 손을 흔들어주었다.

마지막 교도관은 내 손에 사탕 한 봉지값도 안되는 돈을 수고비랍시고 현찰로 쥐어주었다. 교통비도 안될 법한 돈이었다. “도주는 자멸의 길이다”라고 쓰여 있는 철대문을 나와서 새 땅을 밟는 그 순간에 만감이 교차했다. 푸른 하늘이 눈에 들어왔다. “주여, 다시 소생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인생에서 정말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삶이었다. 철대문이 ‘끼이익’하고 닫혔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종료반에서 누구 가족이 먼저 오는가 내기를 했던 동명삼인 중 가장 마음 설레게 먼저 온 것은 박씨네 집이었고 그 다음이 김씨네였다. 나는 가장 마지막에 나갔지만 그래도 간발에 차로 오전 중에 남편이 데리러 왔다. 남편은 오토바이에 기대 휘파람을 불며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글프고 힘든 감정이 물밀듯 밀려오고 나를 부르는 친구들의 목소리가 귀에 절절하게 울리는 이 순간에 나는 남편의 얼굴

을 똑바로 쳐다보기가 힘이 들었다. 남편은 근처 여인숙에서 모두부에 계란을 삶아와서 나를 챙겨주었고 나는 그 자리에서 모두부 한 모를 금새 다 먹었다.

집으로 떠나기 전 남편과 함께 담당교도관 집에 들러서 정중히 인사를 하고 길을 떠났다. 그 교도관은 악한 면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인간성이 있는 사람이었다. 벌목반에서 조장을 하면서 끝까지 제대로 조장 역할을 하고 출소한 사람은 나밖에 없었을 정도로 치열했던 그 분위기 속에서 나를 은연 중에 도와주기도 했던 것이 이제는 추억으로 남았다. 그런 작은 지점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을까?

남편이 빌려온 오토바이 덕분에 생각보다 일찍 집에 갈 수 있었다. 원래 오토바이는 잘 사는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사치품이다. 그 자체로도 값이 꽤나 나가거니와 한 번 타기 시작하면 유지비나 연료비가 많이 들고 특별한 이유 없이 단속과 벌금의 대상이 되어 평범한 사람들은 좀처럼 갖기 어려운 교통수단이다. 그러니 우리집에 오토바이 같은 고가품이 있েল리가 없지만 남편은 나를 데려가려고 동네의 한 젊은 분에게 대여비를 지불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쏜살같이 달려온 것이다.

정신없이 달려가던 중 남편은 눈에 익은 어떤 동네에서 오토바이를 멈추었다. 가방에서 소주를 꺼내주면서 말하기를 출소 일주일 전에 친정오빠가 갑작스럽게 원인 모를 심장마비로 명을 달리했다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살아나오면 볼 줄 알았는데... 오빠의 죽음에 정말 혼자가 된 것만 같은 공허함이 밀려왔다. 감옥에 갇히어



〈북한 평안북도 구장군에서 농부들이 눈덮인 밭길을 걷고 있다 (VOA 자료사진)〉

그 오랜 세월동안 서로 얼굴도 못 보았던 것이 미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여 그 자리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끼이끼이 울었다. 남편은 내가 다 울때까지 기다려주었다. 어느 정도 진정이 되자 오빠가 묻힌 곳을 향해 술을 붓고 인사를 하였다. 남편의 배려가 참 고마웠다. 그렇게 한참을 있다가 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우리 집 쪽으로 향했다.

출소 며칠 전부터 날씨가 궂었는지 눈이 아주 많이 쌓여있었다. 언덕 아래에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언덕 위 집 쪽으로 올라가는데 어디선가 낮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위를 올려다보니 시어머니가 창문 밑으로 내려다보면서 얼른 올라오지 않고 무엇 하느냐고 소리를 질렀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렇게 눈물이 날 수가 없었다. 처음 중국으로 간다고 작별인사를 했을 때로부터 어언 8년이 지난 세월동

안 시어머니는 참 많이도 늙으셨다. 엉엉 울면서 그 미끄러운 오르막길을 두 손으로 기는 듯이 올라갔다.

시어머니가 주시는 딱딱딱한 두부를 단숨에 먹어치우고 삶은 찌물에 목욕을 했다. 감방에 있었던 2년 내내 똥냄새가 진동하는 방 안에 있다보니 똥독이 오를대로 올랐다. 따뜻한 두부 찌물에 몸을 담그니 꿈만 같았다. 다 씻고 깨끗한 몸으로 집 안에 들어가 마침내 우리 아이들과 인사를 했다. 8년만에 만났던 아이들은 엄마를 낯설어했고, 나는 그런 아이들을 그저 꼬옥 끌어안아주었다. 곧이어 시어머니는 저녁밥을 나오셨다. 오랜만에 따뜻하고 인간미가 넘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그리고 그리웠던 남편과 아들딸,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그 순간이 참 행복했다.

그런데 그 순간, 밥상을 치우려고 하는데 누

군가 밖에서 문을 두드렸다. 보위지도원이었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공포감이 밀려왔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본능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다. 오늘 겨우 출소하여 집안 식구들을 만났는데 웬 보위지도원이 이 시간에 왔지 하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 보위직원은 별안간 남편보고 술을 가져오라며 나보고 그동안 고생했다고 말했다. 그저 그렇게 인사하러 온 것이 다였다. 나는 순간 밀려오는 황당함과 함께 화가 치솟았다. 이렇게 남의 집에 무단으로 찾아와서 되도 않는 위로의 소리를 하는 것이 아주 꼴도 보기 싫었다. “당신이 나한테 인사를 하려면 당신네 집에 초대를 해서 인사를 하든지. 적어도 술을 권하려면 술을 사오든지!” 라며 쏘아붙였고 그 지도원은 말문이 막혀서 얼굴이 빨개지며 돌아갔다. 친척들도, 이웃들도 아직은 찾아오지 않은 이 밤에 얼굴도 모르는 보위부 직원이 이렇게 느닷없이 찾아

온 것이 참 불쾌했다.

그날 저녁 집에서 잠을 청하는데 밤새 잠이 오지 않았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8년의 세월이 유수와 같았다. 그렇게 보고싶고 갈망하던 가족들과 만나 한 이부자리에 누워있는 것이 참 꿈만 같았다. 감방에 두고온 친구들도 생각나고, 끝까지 엉엉 울던 옥자, 허약반에 있던 보배언니, 신앙의 기둥과 같았던 루디아 선생님... 어제 밤까지만 해도 냄새나는 감방 안에서 제대로 눕지도 못하고 잤건만 오늘 내가 이렇게 여기 가족과 함께 누워있다는 것이 참 꿈만 같았다. 만감이 교차했다. 이렇게 무사히 나오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렸다. (계속)

+ 북, “코로나 철저히 막아” 전문가들은 물음표

전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몸살을 앓는 가운데 북한이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없으며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먼저 북한은 매체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의심돼 격리된 주민들에게 비상식량과 생필품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전매체 '서광'은 3월 17일 함께 자택에 40일간 격리됐던 평양 주민의 후기를 공개하며 자택 격리간 구역 위생방역소와 진료소 호 담당 의료진의 집중적인 관찰을 받고, 인민반과 동, 기업소를 통해 식자재와 난방 땔감을 지원받았다고 소개했다.

격리 조치 관련해서는 그간 최소 한 달 이상 격리됐던 입국자와 외국인 등에 대한 해제 조치를 속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3월 19일 기준으로 현재 3명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들이 격리 해제되었다. 또한 내국인에 대해서도 3월 20일 기준으로 평안남북도 4천300여명, 강원도 1천430여명, 자강도 2천630여명(3월 8일 보도) 등 최소 8천360여명이 격리 해제된 것으로 보도했다.

북한측 발표에 따르면 현재 북한의 코로나19 방역은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북한의 발표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먼저 제기되는 문제는 바로 코로나19 검사 관련 부분이다. 북한은 감염자가 0명이라고 지속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된 검사를 받은 인원 자체가 매우 소수여서 제대로 된 실태 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



히 코로나19가 무증상 또는 경미한 증상만 보이는 감염자를 통해 타인에게 감염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고려해볼 때 충분한 검사 없이 이루어지는 방역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편 북한의 코로나 방역을 돕기 위한 인도적 지원이 논의되고 있다. 국제적십자사와 국경없는 의사회, 세계보건기구 등 단체들은 북한에 코로나19 진단과 방역을 위한 진단 키트와 보호장구 등 물품들에 대한 유엔의 제재 예외 승인을 받았다.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에 제안한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언론보도종합)

+ 북,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 시험 지속



북한이 3월 들어 3차례 연달아 미사일 발사 실험을 실시하였다.

북한은 3월 2일 강원도 원산 인근에서 동해 북동방향으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이어 9일에는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3발의 발사체를 발사하였고, 21 일에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아 올렸다. 앞선 2번의 발사체는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초대형 방사포, 3번째는 신무기로 보이는 전술유도탄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2월 28일 합동타격훈련을 실시한 데 이어 3월에도 잇달아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고 지적했으며 EU와 UN, 미 국무부 등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규탄했다. 다만 트럼프 미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발사와 관련해 "단거리 미사일에 반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미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에게 친서 전달… 코로나 방역 협조 의향 전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며 유화적 손짓을 보냈다.

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한국시간 3월 22일 새벽 담화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 북미관계 추동 구상을 설명하고 코로나19 방역에서 협조할 의향을 전달했다고 밝힌 것이다.

미국 고위 당국자 역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낸 사실을 확인하면서 지속적 소통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3월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처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방역을 고리로 김 위원장을 향한 신뢰를 확인하며 동시에 비핵화 협상 등 북미 관계 진전 희망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친서가 전달된 시점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북한이 이달 들어 벌써 세 번째 발사체 발사 실험을 하는 도발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 대한 친밀감을 표시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에도 김 위원장의 생일 축하 친서를 보낸 바 있다.

미국은 그동안 경제 제재를 통해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낸다는 최대 압박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인도적 지원에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13일 코로나19와 관련해 북한 주민의 발병 취약성을 우려한다며 필요시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코로나19 인도적 지원은 제재와 별개라는 입장을 수차례 공언했다. 특히 최근 들어 미국 내 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 매일 언론 브리핑에 직접 나설 정도로 급박한 상황에서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에 관심을 가졌다는 부분은 다소 이례적인 일로도 여겨진다.

친서에는 코로나19 문제를 넘어서는 내용이 담겼을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김 제1부부장의 담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친서에서 북미 관계를 추동하기 위한 구상을 설명했다. 이 구상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비핵화 해법과 제재 해제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진전된 생각을 내놔를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북한이 수용할 만한 안이 못되거나 북미 관계 개선에 관해 원론적 수준으로 언급했을 가능성도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가 비핵화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겨냥했다기보다는 북한 변수가 오는 11월 재선 도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려는 차원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참고: 연합뉴스, 3월 22일)

+ 북, 김여정의 역할 부각... 앞으로의 위상 주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무게감이 점점 커지고 있어 주목된다. 이달 초 청와대 비난의 선봉에 직접 선 데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서에도 화답하는 등 갈수록 정치적 위상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3월 22일 김여정 제1부부장은 '미국 대통령이 보내온 친서는 조미 두 수뇌분들 사이의 특별한 개인적 친분 관계를 잘 보여주었다' 제목의 담화를 냈다. 그가 개인 명의 담화를 낸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밤에는 '청와대의 저능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한다' 제목의 데뷔 담화를 발표, 전날 있던 인민군 전선 장거리포 병부대의 화력전투훈련이 자위적 차원임을 강조하면서 이에 강한 우려를 표명한 청와대에 거친 비난을 쏟

아냈다. 담화에는 '주제님은 실없는 처사', '저능하다' 등의 막말이 담겼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오른팔이자 혈육으로서 불쾌감을 직접 대변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이처럼 비중 있는 담화를 연달아 낸 것은 그의 정치적 역할이 단순히 김정은 위원장의 보좌에만 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다만 김여정의 청와대 비난 담화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코로나19 사태 극복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상반된 행보를 보여 그 의도와 해석에 대한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 (참고: 연합뉴스, 3월 22일)

+ 지난해 북한의 대중 무역적자 사상 최대

지난해 북한의 대중국 무역적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무역협회는 19일 지난해 북한과 중국 간 무역 동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9년 북한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전년도에 비해 약 17% 늘어난 23억 7천만 달러에 달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와 동시에 강도 높은 대북제재가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북중 무역액은 2018년보다 약 16% 증가해 28억 500만 달러에 달했다.

보고서는 강력한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중무역이 지속되고 2019년엔 오히려 증가한 것은 제재가 강화될수록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도가 심화되는 구조를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대중 수입은 지난해 약 17% 늘어난 25억 8900만달러를 기록했고 대중 수출 역시 약 11% 증가해 2억 1600만달러에 달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대북제재로 수출길이 막힌 북한에게 대중 무역총액의 증가는 곧 무역적자의 증가를 의미할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대외무역구조가 수입이 수출에 비해 현저히 높은 구조이기 때문에 무역총액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무역적자가 심해지는 구조라는 것이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이어 대중 수출이 늘어난 것에 대해 2017년에 강화된 대북제재의 효과가 2019년엔 다소 줄어들었다는 징후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북한이 제재로 인해 수출하지 못하는 석탄과 의류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들, 즉 시계, 축구공, 신발 등 제재 대상이



〈중국 단둥시와 북한 신의주를 연결하는 압록강대교에서 북한으로 향하는 화물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다.〉

아닌 임가공 품목들의 수출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앞으로도 외화수급을 위해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수출품들을 꾸준히 개발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직물 등 의류 원부자재를 지속적으로 수입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재대상인 품목들도 비공식 경로를 통해 수출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수입품목 중에 의류 임가공 제품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의류는 대북제재 물품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비공식적인 무역도 꾸준히 하고 있다는 반증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면서 올해 북중무역은 일시적으로 감소하겠지만 사태가 진정되면 다시 급반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참고: 자유아시아방송, 3월 19일)

+ 개성공단 마스크 생산 주장 재기... 실현 가능성은?

개성공단을 재가동하여 코로나 방역용 마스크 수요를 충당하자는 주장이 재기되었다. 개성공단 내에는 기존에 월 100만장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 1개사와 면 마스크 제조 업체 50개사, 위생 방호복 제조 업체 64개사 등 관련 업체가 입점했던 만큼 기존 설비와 숙련된 북한의 노동자를 활용하면 부족한 마스크 생산을 충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개성공단 마스크 생산 주장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호응이 있었다. 민주당 박광온, 설훈 최고위원은 3월 11일 최고위원회에서 개성공단을 활용한 마스크 생산 확대를 제안했다. 민주당 우원식 전 원내대표와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도 3월 12일 마스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재가동을 촉구했다.

의료계에서도 남북한이 협력해 개성공단에서 마스크를 공동으로 생산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통일보건의료학회는 국내의 경우, 사업자 입장에서 무작정 생산 시설을 확장하고 고용 인력을 늘릴 수 없어 정부의 요청에도 공급량 증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하고 개성공단에 있는 마스크 생산업체와 봉제업체, 북한의 노동력, 글로벌 자본 등을 이용하면 이런 문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또 마스크로 시작된 협력 논의를 고글, 안면보호구, 장갑, 보호복 등 감염병 위기대응 물자 패키지 생산을 향한 논의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마스크 생산을 위해 개성공단을 바로 재가동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

다고 밝혔다. 개성공단이 재가동되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지만, 그동안 중단돼 왔던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시설점검 기간이 필요하며 마스크 생산에 필요한 필터나 부직포 등의 필요 원자재를 개성으로 반입하는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남북 인원이 실내에서 만나 밀접접촉을 해야 한다는 상황도 부담이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개성공단 마스크 생산에 대해 "마스크는 공장 문제가 아니라 필터의 공급이 부족해 증산을 못 하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언론 보도 종합)

북한 이해를 위해 더 읽을만한 책



제목: 통일을 넘어 열방으로
- 북한 사역 헌신자 훈련 표준교재

저자: 북한사역목회자협의회

출판사: 아가페북스

발행일: 2020년 1월 30일

가격: 13,200원

북한 선교란 말을 들었을 때 성도들마다 떠올리는 그림은 상당히 다릅니다. 탈북자 사역, 인권 운동, 인도적 지원 등 북한내외에서 가능한 각종 직간접적인 선교적 접근방안 뿐 아니라 통일 이후를 가정한 사역들까지 북한 선교 사역의 스펙트럼이 매우 넓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한눈에 알기 어려운, 일반 성도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 바로 북한 선교일수도 있습니다.

그 동안 북한선교에 대한 다양한 서적들이 출판되고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 중 상당수가 경험에 입각한 일종의 간증집에 가까운 내용이었습니다. 은혜롭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러

한 책들은 많은 성도들에게 큰 도전을 주어왔지만 한편으로는 저자의 특정 경험 위주로 채워진 내용속에 북한 선교의 다양한 모습들이 다 담기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책들은 자세하게 북한 선교를 소개하기도 했지만 분량이 많고 일반 독자들이 다가가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양과 학술적인 내용으로 쉽게 접근하기 어렵기도 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통일을 넘어 열방으로 - 북한 사역 헌신자 훈련 표준교재”는 일반 독자들에게도 부담없이 추천해드릴만한 좋은 북한 선교 입문서입니다. 이 책을 지은 “북한사역목회자협의회”는 북한과 통일선교사역의 전문

목회자 100여명이 각자의 전문 분야를 따라 영역별로 사역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모임입니다.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이 책은 통일과 북한선교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와 접근에서부터 탈북민 사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북한 선교 관련 사역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느낀 이 책의 장점은 북한과 북한 선교를 바라보는 복잡한 입장과 다양한 종류의 사역들을 간결하고 쉽게 잘 정리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독자들이 어렵지 않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한 언어로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어서 이제 막 북한과 북한 선교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사람에게도 큰 부담 없이 권할 수 있는 책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서술을 위해 애쓴 흔적도 긍정적이었습니다. 북한 사역 중에는 입장에 따라 어찌보면 서로 반대되거나 충돌하는 듯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 인권운동과 대북인도적지원사역의 경우 어떤 이들은 각 사역이 정반대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여 한쪽만 추구하고 반대쪽을 배척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이러한 편견을 가늠한 배제하고 각 사역의 필요성과 의의를 설명하면서 전체를 포괄적으로 받아드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의 시작을 성경과 한국의 기독교 역사로 시작한 점이 좋았습니다. 성경속에서 북한 선교를 해야 할 이유에 대해 기초를 잘 다지고, 한반도 기독교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현 시점만이 아닌 역사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함으로써 선교의 기반이 정치적 색깔이

나 이념이 아닌 성경과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드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전반적 내용은 책의 제목에서 이야기하듯이 일종의 ‘표준교제’로서의 역할을 위한 구성을 충실히 갖추고 있다고 보입니다. 앞서 북한 선교에 막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일반 독자에게도 추천할만한 책이지만, 동시에 각 교회나 단체에서도 이 책을 그룹 스터디 등의 용도로도 활용하기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이 책으로 개론을 잡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마음을 따라 ‘각론’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효과적으로 북한 사역을 위한 훈련의 단계를 밟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와 상관없이 북한에는 여전히 복음을 들어야 할 많은 영혼들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통일의 때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각 성도와 교회들이 북한 선교에 눈을 뜨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통일을 넘어 열방으로 - 북한 사역 헌신자 훈련 표준교제”가 교회와 성도를 깨우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며 일독을 권합니다.

북한 기도 제목

1. 북한의 성도와 주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합니다. 선진국들도 코로나19 펜데믹으로 큰 피해를 입는 가운데 보건의료인프라가 열악한 북한에 대한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국제기관들이 북한의 상태를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북한 내에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될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 등 극심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국경봉쇄로 이미 경제적인 어려움이 심각하여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기아와 죽음의 위협에 노출된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지게 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은 바로 일반 주민들과 취약계층일 수밖에 없습니다. 숨어있는 성도들과 북한 주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북한의 지하교인들의 필요를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기도합니다.
2. 북한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합니다. 인간의 예상을 넘어서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북한에 단순한 의료, 보건 영역뿐 아니라 경제, 사회적인 측면까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외부의 도움을 완강하게 거절한 북한이지만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북한 주민들을 섬길 수 있는 여러 길들이 열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비극적인 일이지만 이를 통해 북한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북한을 향한 문이 활짝 열리길 기도합니다.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북한에서 그 곳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간접적으로나마 복음의 향기를 나눌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북한이 기존의 억압과 폭력의 정치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새로운 평화와 공의의 길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도합니다.
3. 선교현장을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선교현장에 계속해서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제3국을 통한 사역은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확산세가 진정되는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선교사님과 현장사역자들의 강건함과 안전을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외진 농촌지역에서 의료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가운데서 신분을 숨기고 지내는 제3국 북한 여성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또한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한 국경 봉쇄와 이동 제한 등으로 난감한 처지에 있는 탈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4.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강화되는 국경통제에 코로나19 사태가 겹쳐져 있지만 성도들을 돕고 격려하는 일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특별히 라디오 복음 사역의 중요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북 복음 라디오 방송 제작을 위해 수고하는 여러 단체와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오픈도어선교회는 극동방송, 북방선교방송과의 협력 및 탈북 성도들이 참여

하는 자체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을 통해 북한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이 깨끗한 음질로 전달되고 들려져서 매일 밤마다 주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그 땅 가운데 들려지도록 기도해주십시오.

5. 북한의 기독교 박해 중단과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픈도어선교회 세계기독교박해지수 2020년 발표에서 북한은 19년 연속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가로 지목되었습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중단되고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믿음의 자유가 보장되고 무고한 이들이 풀려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박해 가운데 고통받는 지하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안전을 위해, 박해로 인해 순교하거나 산간오지 추방 및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형제자매들과 그 후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현재 북에 억류되어 있는 김정욱(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와 탈북민 출신 한국인 억류자(김원호(2016), 함진우(2016), 고현철(2016)) 그리고 그 외 북에 붙잡혀 있는 조선족 사역자들의 석방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6. 한국과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불안감으로 국민들의 스트레스와 경제적 어려움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곧 다가올 총선으로 인한 정치적 긴장도 있습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 교회가 사회에 대안과 위로를 제시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 전파 우려로 예배와 모임의 제약이 심해지는 이때에 교회가 이러한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오히려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또 성도 개개인도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교회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변화하는 한반도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북한에 대한 비전을 더 깊이 품고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우편번호 07056

* TEL 02-596-3171

* Home Page : www.opendoors.or.kr

* E-mail : info@opendoors.or.kr

▣ 후원계좌 (북한선교)

국민은행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9301-04-169183

북한월간개발소식 / 등록일 : 2010년 9월 27일 / 등록번호 : 성북, 라 00067 / 발행년월일 : 2020년 4월 1일

한국 오픈도어선교회 사역자 모집(전임)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돕고 믿음 안에 굳세게 세우는 일에 헌신하여 사역하고 있는 한국 오픈도어선교회는 다음과 같이 북한선교에 헌신할 사역자를 구합니다.

모집인원

현장 선교사(여성 사역부분 : ○명 / 일반 사역부분 : ○명)

주요업무

- 현장의 필요에 따라 선교회에서 진행하는 사역 배정(개별 협의)
- 여성 부분의 경우 북한 출신 여성을 대상으로 한 복음 사역 참여

지원자격

- 교회 및 노회(지방회)의 인정을 받는 선교사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분
- 교육부 인가의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학위(M. div)를 받은 분
- 중국어 가능자 우대
- 여성사역부분의 경우 여성만 지원 가능하며 독신자 우대
- 고난받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열정이 있으며, 특히 공산권 선교에 헌신된 자
- 연령 : 45세 미만 (예외 가능)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신앙고백서(홈페이지 양식 참조)
- 추천서 2부, 최종학력 증명서 및 관련증명서 사본 (면접 시 지참)

기관소개

- www.opendoors.or.kr 와 www.opendoors.org 사이트 참조
- 사역 조건: 선교 파견자는 선교회에서 사역비를 지원하며 구체적 내용은 개별 협의함
- 모집기한 : 구인시까지
- 문 의 처: 다니엘 간사: 010-5107-8448 / 이메일: info@opendoors.or.kr
- 서류제출 - 이메일: info@opendoors.or.kr

- 우 편: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9길 10 (영성빌딩) 4층
한국오픈도어선교회



한국 오픈도어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들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월드와치리스트 2020

World Watch List

크리스찬들을 가장 박해하는 국가 TOP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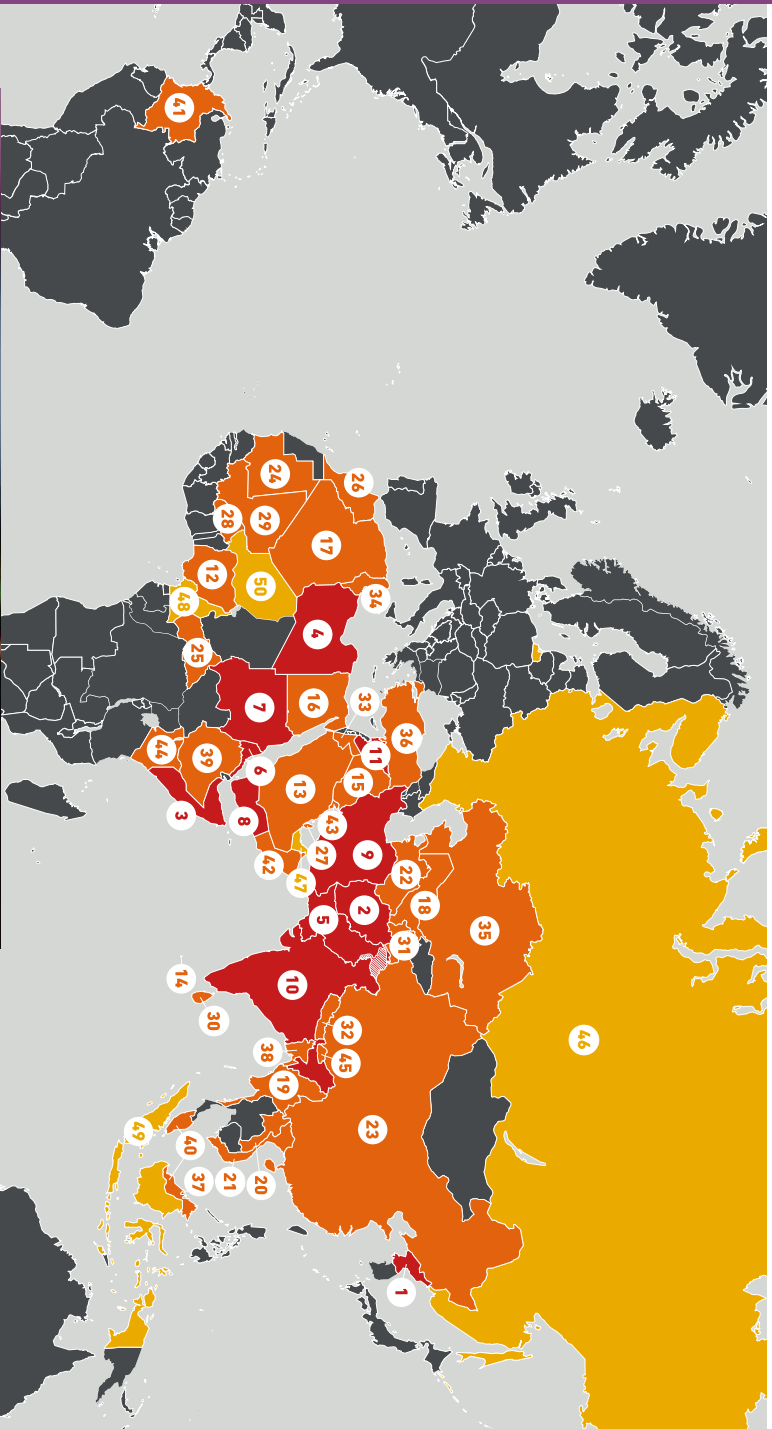
- | | |
|--------------|----------------|
| 1 북한 | 28 모로코 |
| 2 아프가니스탄 | 29 카타르 |
| 3 소말리아 | 30 부르키나파소 |
| 4 리비아 | 31 말리 |
| 5 파키스탄 | 32 스리랑카 |
| 6 에리트레아 | 33 터키 |
| 7 수단 | 34 케냐 |
| 8 예멘 | 35 오만 |
| 9 이란 | 36 튀니지 |
| 10 인도 | 37 카자흐스탄 |
| 11 시리아 | 38 터키 |
| 12 니자리아 | 39 브라질 |
| 13 사우디아라비아 | 40 방글라데시 |
| 14 콜롬비아 | 41 에티오피아 |
| 15 이라크 | 42 말레이시아 |
| 16 아랍트 | 43 쿠웨이트 |
| 17 알제리 | 44 오만 |
| 18 우즈베키스탄 | 45 케냐 |
| 19 미얀마 | 46 라오스 |
| 20 라오스 | 47 러시아연방 |
| 21 베트남 | 48 아랍에미리트(UAE) |
| 22 투르크메니스탄 | 49 카메룬 |
| 23 중국 | 50 인도네시아 |
| 24 모리타니아 | 51 니제르 |
| 25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

박해 수준

● 극심한 수준의 박해 ● 매우 높은 수준의 박해 ● 높은 수준의 박해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는 크리스찬의 박해가 가장 심한 50개 국가들의 순위를 정한, 해마다 발표되고, 신뢰성이 있는 자료입니다. 오픈도어 연구자들이 100개 국가의 현장을 방문 또는 국제적인 데이터를 분석하여 만들어낸 것입니다. 각 국가의 박해수준은 오픈도어가 이용하는 평가점수 시스템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것은 독립적인 고위층의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의 개인적 경험과 그들이 생활하는 나라의 자유를 통해 신앙생활을 할 자유가 보장되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오픈도어의 조사 방법과 기준들은 국제종교자유기구(International Institute for Religious Freedom)에 의해 감사를 받습니다. WWI 2020 데이터는 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기간에 해당합니다.



크리스찬회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남편 라베쉬는 스리랑카 마타칼로이 교회에서 2019년 부활주일에 자살폭탄테러범이 시온 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자기해당기 생명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가정예배를 멈추지 않았어요!”라고 크리스찬회는 말합니다.

“자신이 발명한 다음 날 밤에도 우리는 가정예배를 드렸고 나는 아이들에게 매일 성경을 읽도록 가르쳤어요. 아이들은 정말 강해요. 남편은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남편을 잃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무너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것을 사랑 하신다 하셔서 나의 깨어진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전세계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회와 또 같이 고난당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테레사 살아남은 아들에게 후원금들을 보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큰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통해 우리를 후원 해주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우리는 피가 아니라는 것을 믿어주세요.”



“형제들이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예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로마서 1:15:30

www.opendoors.or.kr